

‘육일기’ 논란 국제관함식 출발전부터 불안

내달 10~14일 열릴 국제관함식 최대 규모로 준비
14개국 21척·45개국 대표단 등 함정 50여척 참가
日해군 자위대 부대기인 육일승천기 달고 참여
해군 측 “해군 상징 부대기 사용말라 강요 못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관함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가운데 일본 측에는 육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해군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14개국 21척의 군함과 45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총 50여척의 군함과 2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군함을 보내는 국가는 미국으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4척이, 러시아 해군은 바라크함 등 3척, 인도네시아 해군은 범선이 관함식에 참가한다. 이 밖에 호주·중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싱가포르 등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세 번의 국제관함식에 모두 참가한다. 이들 함정은 관함식 기간 중 국가별로 공

개행사, 승조원 문화탐방, 참가국 간 친선활동, 함정기술세미나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이번 관함식에 육일승천기를 달고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육일승천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재 일본 해상 자위대에서 부대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 해군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1998년과 2008년 관함식 때 모두 육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했었다”며 “육일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가 부대기로 육일기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에서 해군의 상징인 부대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는 14개국 21척의 군함과 45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총 50여척의 군함과 2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5년 부산에서 열린 해군 관함식 행사장 모습. 사진=대한민국해군 제공

번 국제관함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평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대장 Ade Supandi), 러시아 해군사령관(대장 Vladimir Ivanovich Korolev),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John C.

Aquilino) 등 참모총장급 30명과 대표장성 15명 등 총 45개국에 이르는 대표단도 제주를 방문해 관함식 기간 우리 해군과의 양자대담과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함정기술 세미나 및 해양무기학술대회, 해상사열, 특별방산기획전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올해 추석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3만 2000원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은 23만2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2만9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일 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을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통시장은 23만2370원으로 지난해(21만7417원)보다 6.9%, 대형유통업체는 32만9081원으로 지난해 31만3825원에 비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성수품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이례적인 폭염, 8월 하순부터 이어진 국지적 호우로 인해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전년도 생산량이 감소해 전통시장 기준 32.6% 상승했고,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시금치는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또 봄철 이상저온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사과·배는 상품과(上品果) 비중이 줄었고, 밤·대추는 낙과 등이 증가해 추석 전 가격이 전년 대비 다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윤기자

제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지난달 26일 돈육반입… 전염 가능성은 낮아
제주도, 공항 엑스레이 검사 등 검역강화 요청

제주공항에 입국한 중국인이 갖고 있던 축산물 가공품에서 돼지 치사를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유전자가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식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돈육 가공품(소시지)에서 ASF유전자가 확인됐다. 정부는 열흘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주대학교 오는 10~14일 수시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

제주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19학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

단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공된 제품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검역상황을 직접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 엑스레이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요령을 지도·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 특별방역관리 및 남은 음식

서점수를 실시한다.

선발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 895명, 실기위주전형 79명, 학생부종합전형 613명 등 1587명이다. 제주대는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2018학년도 54.5%에서 2019학년에는 65.7%로 대폭 늘려 우수

물을 돼지에게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에 해외여행시 축산 관계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검사하고 있으며 3~4주 뒤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ASF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을 직접 돼지에게 먹이는 등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및 방역요령을 SMS·안내판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오는 14일 전 양돈농가와 단체, 수의사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채해원기자

인재 유치 선전에 나서고 있다.

제주대는 특히 미래융합대학의 평생학습자 전형과 재직자2 전형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오프라인 원서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제주대 입학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7일 금요일 음 7월 28일 (5월)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온 후 밤에 차차 개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7℃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70%
70%	성산	70%
70%	고산	70%
70%	서귀포	70%

물때	해돋이 06:12	달뜨기 02:57
	해짐 18:52	달짐 17:12
	만조 08:27	간조 03:08
	21:27	14:55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1/25℃

모레 구름 많음 22/26℃

생활·안전 기상정보

자외선지수 보통

식중독지수 위험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2. 7	성산오일장	4. 9
한림민속오일장	4. 9	중문향토오일장	3. 8
세화민속오일장	5. 10	표선오일장	2. 7
함덕오일장	1. 6	대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제주항공·국토부 ‘90억 과징금’ 공방

국토교통부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을 국제선 화물칸에 실어 운송한 제주항공에게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즉각 반발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어 ‘화물’로 취급한 것인데 국토부가 이런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과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시계 등을 화물로 취급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리튬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화물이다.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려면 국토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허가 없이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과징금 수위는 과도하게 책정됐다

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운송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이고 통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하는 9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는 항공 역사상 단 한번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드론버스=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재+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필기시험 면제)

주중반 주말반 수시반

교육장소 : 유수리리 운동장

064-746-7277 (24h 상담)

부동산관리학과
Real Estate

실버케어복지학과
Silver Care and Social Welfare

건강뷰티향장학과
Beauty and Cosmetology

관광융복합학과
Tourism Convergence

평생학습의 꿈
성인학습자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제주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2019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8. 9. 10.(월) 09시 ~ 9. 14.(금) 17시

온라인접수
(주)유웨이애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오프라인원서접수
본교 입학관리과 방문 접수만 가능

모집학과
건강뷰티향장학과 |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 실버케어복지학과

성인 학습자 맞춤형 학사운영
- 야간, 주말, 온라인 과정 운영
- 신청한 학점만큼 내는 등록금
- 풍부한 장학금 혜택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